

흔들리는 기억의 초상... '더 파더'

푸른연극마을 우수 레퍼토리 공연
15-19일 씨어터연바람서 선봬
반복·중첩 속 미스터리 구조로
알츠하이머 시점서 서사 펼쳐내

치매를 겪는 한 인간의 내면과 존재의 균열을 정면으로 마주한 연극 '더 파더(The Father)'가 관객과 만난다.

기억을 잃어가는 과정 속에서 흔들리는 자아와 현실 감각을 따라가며,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푸른연극마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씨어터연바람(동구 구성로204번길 1-1)에서 연극 '더 파더'를 선보인다.

1993년 창단 이후 창작극과 소극장 운동을 이어온 푸른연극마을은 창단 30주년을 맞은 2023

년 이 작품을 처음 무대에 올린 이후, 매년 우수 공연 레퍼토리로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더 파더'는 프랑스 소설가이자 극작가 플로레앙 젤레르가 2012년 발표한 희곡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치매에 관한 가장 잔혹하면서도 솔직한 연구', '21세기 최고의 연극' 등 평가를 받으며 몰리에르 작품상, 영국 올리비에상, 미국 토니상 등을 수상했다. 원작을 바탕으로 한 영화 '더 파더'는 안소니 홉킨스 주연으로 제작돼 2021년 제 93회 아카데미 남우주연상과 각색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작품은 알츠하이머를 겪는 노년의 앙드레가 점차 고립돼 가는 과정을 미스터리한 구조로 풀어낸다.

"믿었던 것들이 부정당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의 당혹스러움,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있어"라는 설정과 같이, 이야기는 미로처럼 전개되며 관객이 스스로 사건을 추리하도록 구성된다.

특히 알츠하이머를 겪는 당사자의 시선에서 서사가 전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복되는 대사와 상황, 등장인물의 변주는 앙드레의 혼란을 극대화하고 관객 역시 인물과 같은 불안과 혼란을 체험하도록 만든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가 무대 위에서 구현된다.

이번 공연은 연극·미술·음악이 결합된 컨템포러리 협업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무대 위에는 회화적 설치미술이 더해져 감각적 몰입을 유도한다. 지역 출신 김상연 화가의 회화 이미지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며, 버클리 음대 출신 박근혁 작곡가는 심리적 상성과 현실의 혼재를 음악으로 표현한다.

앙드레 역은 40년 경력의 배우 오성원이 맡았다. 다양한 화술과 감정 표현으로 알츠하이머를 겪는 인물을 그려내면서 작품 전반을 이끄는 중심 축 역할을 한다. 이당금 연출은 배우의 감정선과 무대 언어를 결합해 절정을 향해 치달리는 서



사를 구성한다. 출연진은 주연인 오성원을 비롯해 이당금, 이명덕, 조이리, 민찬욱, 박선주 배우가 참여한다. 연출을 맡은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는 "숨

소리와 눈빛만으로도 관객의 마음에 닿는 연극이 되길 바란다"며 "소극장 무대에서 관객과 가까이 호흡하며 작품의 감정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내년 광주서 '아태 오케스트라연맹 총회' 열린다

국내 최초 개최...광주예당 주최·주관

광주가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 협력의 핵심 무대인 APRO 총회 유치에 성공했다.

광주시는 "지난 1일 일본 가와사키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오케스트라 연맹(APRO, Asia-Pacific Region Orchestras) 총회' 폐막식에서 2027년 총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APR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오케스트라와 공연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협력 플랫폼으로, 1997년 창설 이후 지역 오케스트라의 정책 방향과 협력 체계를 이끌어왔다.

이번 선정은 광주의 문화적 역량과 향후 전략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역대 총회는 도쿄, 상하이, 모스크바, 시드니, 뭄바이, 마카오, 싱가포르 등에서 열렸으며 국내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0일 APRO 총회 개막식에서 열린 기념 공연

2027년 총회는 광주예술의전당이 주최·주관한다. 전당은 이를 계기로 오케스트라의 역할을 기존 공연 중심에서 국제적 문화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작·유통·관객 확장 전략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총회 유치는 공연예술과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는 앞서 2020년 APRO 총회 개최지로 선정됐으나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된 바 있다.

이후 중단됐던 총회는 지난 3월30일부터 4월1일까지 일본 가와사키에서 재개됐다.

올해 총회에는 광주예술의전당을 비롯해 KBS교향악단,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등 국내 기관과 함께 독일,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등 14개국 50여 개 오케스트라 및 공연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동서·신구 문화를 잇는 플랫폼으로서의 오케스트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모델 등 공연예술의 미래와 관련한 주요 의제가 논의됐다.

전당은 주요 발제자로 참여해 '오케스트라의 국제 공동제작 및 디지털 융합 확대 전략'을 발표하고, 기존 인적 교류 중심 구조를 기술 기반 협력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윤영문 전당장은 "2027년 총회에는 올해 불참한 중국을 비롯해 영국·독일 오케스트라 연맹 등 주요 기관의 참여도 예상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전남광주 Book 박물관 추진 세미나

내일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

광주·전남 지역 장서가와 시민들이 모여 도서 자원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전남광주 북(Book) 박물관 추진 시민모임(대표 안종철)'은 오는 15일 오후 2시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전남광주 북(Book) 박물관 추진방안'을 주제로 첫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시민들이 오랜 시간 수집해온 도서가 체계적으로 보존되며, 일상 속에서 활용 가능한 공유 자산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시민모임은 단기적으로 '북(Book) 박물관' 구축을, 장기적으로는 도서관(Library)·기록관(Archives)·박물관(Museum)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Larchiveum)'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날 기조 발제는 장우권 전남대 교수가 '왜 북 박물관인가?'를 주제로 맡는다.

1부 토론에서는 김종구 조선대 도서관장, 김규광 광주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산업 총괄기획자, 이어진 동구문화관광재단 이사, 박지현(주)문화토리 대표 등이 참여해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김대현 전남대 명예교수, 조대영 동구인문학당 감독, 김용철 동명새마을금고 이사장, 주광 한국방송DJ연합회 기획이사 등이 '책과 더불어 삶의 여정'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최명진 기자

'작은 선택이 만드는 사회 흐름'

내일 국립광주과학관 과학스쿨

국립광주과학관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오는 15일 오후 7시 과학관 상상홀에서 '2026년도 제2회 과학스쿨' 강연을 공동 개최한다.

강연은 진규호(사진) G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를 초청해 '나의 작은 선택이 만드는 커다란 불꽃'을 주제로 진행한다.

사회물리학 관점에서 개인의 선택이 집단 행동과 사회적 흐름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낼 예정이다. 진 교수는 물리학적 모델과 복잡계 이론을 기반으로 사회 현상과 대중의 선택, 기업 전략 등을 연구하는 데이터 융합 분야 연구자다.

서울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 학사,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성균관대학교 객원교수를 거쳐 현재 GIST 인문사회과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모집 인원은 회당 150명으로 전 연령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 방식으로 선착순 접수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할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